

## 개천에서 용났네

**개천**에서 용났네 우리 정충신(鄭忠信).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인물로 정충신 장군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의 전남 광주에 가면 금남로(錦南路)라는 시가이름이 있는데, 금남이라는 분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측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금남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금남은 정충신(鄭忠信 : 1575~1636)의 호이다. 따라서 정충신이 광주출신이라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그 업적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구, 초년 홀아비인 나에게 누가 시집을 여자가 있어야지. 게다가 광주 목사의 통인 신세니 뭐 자랑할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7대조 할아버지는 고려말 명장이라 하나...나이란 들어가는 내 신세, 내 팔자여!”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1576년, 조선시대 선조9년 경에



최 래 옥  
〈한양대 사범대학장〉

있었다. 자식 하나 없이 홀몸하나 추스르기에 힘이 든 이 사람이 하루는 문득 한 여자를 접쩍게 되었다.

“그렇다. 저 여자, 저 추물에게라도 정을 쏟아보자.”

당시 그 여자는 관비(官婢)라, 신분이 그런데다가 못생기기는 어찌나 못생겼던지 광주 고을에 추너로 명성이 자자한 여자였다.

구제하는 셈 치고, 아니 외로움을 달래는 셈 치고, 저 여자를 시집보내준다는 가혹한 마음이라 치고...

일년 만에 아들 하나를 무우 뽕듯이 뽕았다.

어린 것이 얼마나 영리한지 침착하고, 슬기롭고, 인정 많고, 눈치 빠르고, 건강하며, 인물이 잘 나고, 기억력이 뛰어난 데다, 생각이 깊어 신동 중에 상신동(上神童)이었다.

“허 참, 제 어미애비에 큰 복덩이로다. 얼마나 귀여운 아이냐? 이리 오너라.”

당시 광주 목사인 권윤(權慄)장군은 이 아홉살 밖에 안된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였다. 가복(家僕) 곧 종이라는 신분이지만 전혀 천한 아이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자식 같이 대하였다. 그러다가 막내사위를 삼았다. 아, 일장 연설을 할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를 말하여 보라. 권윤 이라면 임진왜란의 영웅이다. 그의 만사위가 정승인 오성 이항복(鰲城 李恒福)이다. 그런 사람의 사위가 통인과 관비의 아들이라니. 겨우 나이 열 다섯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미 나라의 재목으로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충신아! 지금 임금님께서서는 압록강 근처인 의주(義州)에 몽진(蒙塵), 곧 피난가 계신다. 여기 전라도의 소식인 장계(狀啓)를 전하여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광주 바깥에만 나가면 왜군의 세상이니 말이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혼자 의주까지 가서 그 장계를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하하하. 따님을 과부만들지 아니할 자신이 있으니 나라에 충성할 담보가 있나이다.”

“그렇다면 믿는다.”

이리하여서 정충신은 그 소중한 장계를 몸에 깊숙히 지니고 거지처럼, 농부처럼, 과객처럼 여러가지 신분으로 변장하면서 드디어 평안도 의주까지 다다랐다. 속에는 칼을

품고서, 기지(機智)와 담력과 애국심이 없다면 어찌 그 머나먼 몇 천리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왜군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또 뚫고 간 것이다.

이것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든다면 참으로 긴장만점의 작품이 되리라. 선조 임금님은 실로 감격하여 즉시 면천(免賤)하여 주었다. 이제 천민신분이 아니라 양반 신분이 된 것이다. 무과에 합격도 하였다. 그러면서 동서(同嬖)요 당시 정승인 이항복에게 큰 인물이 되게 지도하라고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정충신은 문무 겸전한 귀중한 인재로 서서히 부각이 되었다. 그의 업적이 많지만 한 두가지를 말하겠다.

인조반정에 공이 큰 이괄(李适)은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는 평안 병사겸 부원수로 영변에 진출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서울로 진격하였다.

당시 도원수는 장만(張晩)이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괄군을 장만은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때 안주 방어사로 있던 정충신은 자기 고장은 숙천 부사인 정문익(鄭文翼)에게 부탁하고 즉시 홀로 장만을 찾아왔다. 장만은 깜짝 놀랐다. 근무지 이탈로 군벌으로 다스리려고 하였다. “잠깐만 참으십시오. 제 친구이자 이웃 고을대장인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제가 공모자가 됩니다.

비록 이괄과 절친하지만 역적이 된 그에게 이제는 친구만 논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괄을 잡습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바쁘게 그를 막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이괄군사가 평안도를 떠난 마당에 저 같은 인물이 거기만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저에 대한 문책은 나중에로 미루고 같이 이괄을 막아 치도록 하십시오.”

“좋소. 이제 부원수가 되어서 나를 도와 주시오.”

“예. 이괄이 할 일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제일 좋은 상책은 그가 평안도에서 웅거하고 있는 명나라 장군 모문룡(毛文龍)과 합세하여서 세력을 길러 조정을 위협하며 차후에 진격하여 오는 것인데, 이미 이 상책은 이괄이 버린 것이라 논할 것이 못되며, 둘째 중책은 지금 임금님께서 공주에 피난가시는 길인데, 이괄이 서울에 머물지 아니하고 즉시 추격하여서 임금을 잡는 것이요, 새책인 하책은 서울에 들어가서 머물러서 으스스대며 자기세상인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관군이 병력을 재편성하여 서울을 탈환한다면 이괄은 지게 마련입니다. 이 때 중요한 곳은 북쪽의 높은 산인 안산(鞍山)이 될 것입니다.”

장만은 실로 이괄의 뱃속까지 꿰뚫어보는 정충신이 든든하였다. 자, 이괄은 과연 이중 어느 길을 택하였던가? 불행하게도, 그러나 나라에는 다행하게도 서울에 진입해

머물러버렸던 것이다. 이런 사이에 정충신의 선봉부대는 안산을 차지하고 이에 놀란 이괄군과 격전을 벌려 승리하였다. 이괄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정충신은 후방에 군사들을 보내어 평과리를 세차게 치며 '이괄이 패했다'고 소리치게 하였다.

이러니 이괄은 우선 심리전에서 정충신에게 진 것이다. 결국 이괄은 서울을 버리고 경기도 광주(廣州)로 도망을 갔다. 뒤따라가서 잡겠다는 동료장군에게 정충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만 두십시오. 궁한 도적은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서 부하 중에 이괄의 목을 베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추격하면 이들은 단결하여 저항하지만 내버려두면 분열이 생깁니다. 도망한 이괄을 쫓느니 서울에 들어가서 백성을 안돈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여주이천에 다다른 적 몇 명이 모의하여 이괄의 목을 베어다가 바치는 일이 생겼다. 정충신이 예언한대로였다.

임금님을 맞이한 후 그는 즉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제가 지키는 지방 근처에서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리 뛰어왔으니 국법을 어긴 지라 임지에 가서 죄를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이러니 인조임금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그의 수고를 위로하며 공 일등에 금남군(錦南君)에 봉하였다.

한번은 만주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일이 생겼다. 그러나 이 사신 가기를 모두 다 꺼렸다.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중원에 진출하려는 때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후방에 위치하면서 명나라의 우방인 조선이 문제가 되자 우호조약을 맺자는 뜻을 보였으나 사실은 위협에 가까운 것이기에 사신을 가는 것이 위태롭다고 보았던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전쟁터나 외교관이나 가릴 것이 있는가?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하여 청나라에 도착하니 궁중 가는 길의 연도에 창검을 세워 위협을 하며 가마솥에 기름을 끓이고 있었다. 잘 보아라. 우리 뜻대로 안하면 이 창검이며 가마솥이 그냥 있지 아니하리라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정충신은 눈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들어갔다.

“하하하. 너희 나라는 인물이 그리 없더냐? 너같은 소소인(小小人 키작은 못난이)이 다 사신으로 오니까 말이다.”

정충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으하하하하. 무릇 사신이란 상대국의 자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법이요. 인의와 도덕이 있는 대국에는 대대인(大人)을 보내고, 포악하며 무례하게 힘만 주장하는 작은 나라에는 저같은

소소인만 보내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도와 제계(階梯)가 이러하니 어찌 닦았을 하리요? 자, 내가 소소인이라 하면서 내가 그리 무섭다는 말입니까? 빛나는 창검이며 펄펄 끓는 가마솥을 빌려야 겨우 나를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정녕 청나라는 소소한 나라라 할 것입니다. 그 대왕 또한...”

“그만 그만. 대단한 사신이요. 이리 상좌로 오르시구려. 내가 농담 한번 하였던지만. 하하하.”

그러더니 또 변덕이다.

“너희 나라가 명나라에 글을 보낼 때마다 나를 도적이라 하는데, 그래 내가 도적이냐? 너희 집 무엇을 훔쳤으며 너희 나라 어디를 빼앗았다는 말이나?”고 호통을 친다.

“으하하하하. 그럼 대왕은 도적이 아니던가요? 천하를 도적하여 차지할 도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찌 좀도적만 도적이라 하리요?”

“하하하. 하긴 내가 도적이지, 과연 정확한 표현이야. 아니 대담한 응수야. 과연 인물이로고. 정말 나와 벼할만한 조선의 사신이로다.”

오늘날, 신분의 벽을 뛰어 넘은 정충신의 애국심과 지혜, 배짱과 재치가 새삼 그리워진다. (㉞)